

# 홈쇼핑 '맑음' 대형마트·편의점 '흐림'

대한상의, 4분기 유통업계 경기전망 조사

전분기보다 4P 하락 전망지수 101 집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비교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종별로 홈쇼핑은 큰 호황이 예상되는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고전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3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4P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 추석 시즌 살아난 소비심리가 연말 특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분기에 87이었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2분기에 98로 올랐다가 3분기에는 105로 치솟았다.

광주·전남 지역은 1분기 82에서 2분기 71로 주춤했다 3분기에는 10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업태별 전망치를 보면 홈쇼핑은 큰 호황을 누리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고전할 것으로 분석됐다.

홈쇼핑은 전분기보다 44P 증가한 148을 기록, 4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모바일 매출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 동절기에는 시청률이 높아지는 특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형마트는 영업규제로 매출과

따른 마케팅 강화 효과도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백화점(108)과 슈퍼마켓(106), 인터넷 쇼핑몰(105)도 기준치를 웃돌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체감 경기를 높게 했다.

슈퍼마켓은 대형마트 정기 휴업으로 평일 소량 구매 고객이 증가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편리성과 합리적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덕분에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각각 92와 90을 기록해 기준치에 못 미칠 것으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 분기와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고객이 감소했고 편의점은 동절기 야간 유통인구가 감소해 고전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업체들은 4분기에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6.9%)을 첫 순위 꼽았다. 이어 '수익성 하락'(21.2%), '업태간 경쟁 심화'(11.1%), '유통관련 규제강화'(8.8%), '업태내 경쟁심화'(7.1%) 등의 순으로 응답이 뒤따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 분기와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어린이들과 마술 놀이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3일 가을 바겐세일을 맞아 백화점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 시범 등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 휴게소 최고 인기 간식은 '우동'

와 4900개 팔렸다.

한편 상반기 휴게소 매출액을 단일 상품코드별로 분석한 결과 호두과자는 3000원짜리(51억9000만원)와 5000원 짜리(50억9000만원)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40억1000만원)가 뒤를 이었으며 2000원짜리(32억3000만원)의 매출이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리는 간식 가운데 우동과 호두과자, 라면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 휴게소 매출액을 단일 상품코드별로 분석한 결과 호두과자는 3000원짜리(51억9000만원)와 5000원 짜리(50억9000만원)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짜리(40억1000만원)가 뒤를 이었으며 2000원짜리(32억3000만원)의 매출이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휴게소 176곳에서 식사류가 아닌 간식류 가운데 판매량으로는 원두커피가 가장 많았다.

원두커피는 이 기간 하루 평균 13만1700잔이 팔렸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마실거리인 원두커피를 빼면 먹을거리로는 우동이 하루 평균 4만 5100그릇이 판매돼 휴게소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생수는 3만700병이 나갔으며 통감자구이와 떡볶이는 각각 9600개

# 소비 살아나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12년래 최대

지난 7월 38조… 전년보다 9.6% 늘어



개인의 소비 주이 및 심리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7월 12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개인들이 쓴 신용카드 이용액은 38조8572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9.6% 늘었다.

2003년 1월(39조30억원) 이후 월간 최대치다. 월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작년 12월 38조2000억원에 달하다가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 축소의 영향으로 2월에는 33조1000억원대까지 줄었다.

그러나 올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온 카드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의 위축에도 카드 일반구매 이용은 늘면서 개인들의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중 일반구매(25조5380억원) 만 작년 동월보다 9.6% 늘었고 할부구매(7조3757억원)는 8.5% 즐었으며 현금서비스(5조9435억원)도 7.5% 감소했다.

다만, 한은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통계에는 국내 발급 카드로 해외 관광 도중 현지에서 결제한

사용분도 포함돼있다.

매달 카드 승인액을 집계하는 여신금융협회의 임운화 조사역은 "개계의 구매여력이 개선되면서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국내 전체 카드 승인액(신용판매 기준)을 집계하는데, 5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3.6% 늘었는데 그쳤으나 6월 4.1%, 7월 7.2%, 8월 7.6% 등 증가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작년 민간 지출 89% 현금영수증·카드결제

### 증빙 가능 결제 수단 매년 상승

### 지하경제 상당부분 양성화 분석

올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미 지난해에 국내 민간 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히 양성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은 총 680조7570억원으로,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수단 비중이 603조3410억원(88.6%)에 달했다. 지난 해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별 거래 비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은 2007년 41.4%에서 2008년 34.3%, 2009년 28.9%, 2010년 22.5%, 2011년 15.3%, 2012년 11.4%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민간 소비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현금 결제의 비중이 줄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 가능한 결제 비중이 9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민간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간지출 부문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제 수단의 투명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야 할 부분이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나 조사 인력의 충원은 혈설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 동부대우전자 '프라이어 오븐' 해외 본격 진출

### 佛 등 7개국 1만대 수출

광주에 국내사업장을 둔 동부대우전자의 '프라이어 오븐'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동부대우전자는 3일 프랑스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페루 등 7개국에 프라이어 오븐 1만대 수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내에 출시한 프라이어



오븐은 국내 최초로 '튀김용 전용 용기'를 적용해 기름 없이 음식을 튀기는 '에어프라이어' 기능을 탑재한 제

품으로, 출시 1개월 만에 2000대 이상 팔리며 동급 일간 오븐 제품 대비 3배 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전자레인지와 그릴, 오븐, 밸효, 뷔김 등 5가지 기능을 갖춘 복합 오븐인 이 제품은 빛으로 조리하는 광파히터 및 세라믹 히터로 빠르고 효율적인 오븐 요리가 가능하다.

국내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을 시작하는 동부대우전자는 프랑스와 러시아 시장을 필두로 다음달부터 독일과 영국, 스페인, 칠레 등 시장을 순차적으로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TV조선의 대국민 프로젝트

# 찾아가는 닥터 콘서트

보고듣기만 했던 방송프로그램 그 이상의 생생한 닥터콘서트가 열린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TV조선의 대국민 프로젝트!

깊이 있는 의학정보를 직접 보고, 듣고, 질문하며

홍혜걸 박사와 최고의 닥터들이 직접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찾아가는 닥터콘서트'

2013년 10월 11일 '2013 서울국제 시니어 엑스포'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닥터콘서트' 그 첫번째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 행 홍혜걸(국내 최초 의학 전문기자 겸 MC, 現 TV조선 '홍혜걸의 닥터콘서트' 진행)

보조MC 개그맨 김한석

### [제 1회 찾아가는 닥터콘서트]

일 시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 스위스파이스

강연자 김정수 교수 (여러분원원 원장 / 신경외과, 척추외과)

강연주제 [척추와 골다공증] 허리를 알면 4억 빈다!

1. 주부 요통
2. 척추관 협착증
3.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4. 허리 통증의 치료 및 수술 요법
5. 골다공증이란?

참가신청 TV조선 홈페이지 (<http://www.tvchosun.com>)

또는 서울 국제시니어엑스포 홈페이지 (<http://www.seniorexpo.co.kr>)

주최 TV조선

주관 CJ CGV